

유전공학적 향상에 대한 샌델의 비판은 옳은가?*

이 채 리**

【주제분류】 기술철학, 응용윤리학

【주요어】 샌델, 유전공학적 향상, 선물주어짐, 겸손, 책임, 연대성

【요약문】

이 논문의 목적은 유전공학적 향상을 반대하는 샌델의 논거를 비판함에 있다. 샌델은 (G1)유전공학적 향상이 AG(선물주어짐에의 인정)의 태도에 어긋나므로 비도덕적이고, (G2) 유전공학이 현실화되면, 겸손, 책임, 연대성의 미덕이 변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1)과 달리 유전공학적 향상은 AG의 태도에 어긋나지 않으며, AG의 태도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첫째, 재능을 얻을 가능성을 제공하는 기술일 뿐인 유전공학이 AG의 태도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며, 둘째, AG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도덕성을 지닌다고 볼 근거 역시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G2) 역시 설득력이 없다. 첫째, 유전공학이 현실화되더라도 겸손이 반드시 약화되는 것이 아니며, 둘째, 책임이 증폭되는 것이 악덕일 이유가 없고, 셋째, 유전공학이 현실화된다고 해서 연대성이 필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G1)과 (G2)는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논거로 하여 유전공학적 향상을 반대하는 샌델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

1. 들어가는 말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은 현재 놀라운 수준의 기술 혁명을 이루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를 하루 만에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고,¹⁾ 유전자의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7년도)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부교수

1) 중앙일보, 2017년 1월 12일자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1110883>.

결함을 치료할 수 있으며, ‘유전자 가위(cryspr)’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다.²⁾ 머지않아 유전공학으로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대중화 될 것이며, 유전자 치료제로 암이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각종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질병 치료와 더불어, 유전공학을 통해 타고난 형질을 향상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유전공학은 보다 더 좋은 유전자로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를 조작하여 보다 튼튼한 신체를 가지거나,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여 보다 우수한 형질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맞춤아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³⁾ 이러한 기술이 가능한 미래에는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근육을 강화하여 보다 훌륭한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될 것이고, 부모들은 보다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전공학적 향상(enhancement)은 도덕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인가? 자신의 타고난 형질을 조작하고, 태어날 아이의 유전자를 설계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것인가?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유전공학적 향상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유전공학적 향상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G1) 유전공학적 향상은 선물주어짐(giftedness)을 인정하는 태도에 어긋나므로 비도덕적이다.⁴⁾

(G2) 유전공학이 현실화되면, 인간의 주요한 미덕(virtue)인 겸손, 책임, 연대성이 변형된다.⁵⁾

즉, 우리는 자연적인 형질을 주어진 선물로서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유전공학적 향상은 이러한 태도에 어긋나므로 비도덕적이며,

2) 유전자 가위는 DNA 가운데 특정한 타깃을 잘라내는 기술을 말한다. 홍성욱, “유전공학의 저울추 :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사이에서”, 『호모사피엔스씨의 위험한 고민』(메디치, 2015), 235쪽.

3) 이미 유전자를 변형한 맞춤형물이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인간의 배아를 유전자 가위를 통해 편집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홍성욱, 앞의 책, 231쪽.

4) Sandel, M. J., 이수경 역, 『완벽에 대한 반론』(와이즈베리, 2016), 43-107쪽 참조, 다음 각주부터 이 문헌을 CP로 표기함.

5) CP, 111-9쪽 참조.

유전공학의 현실화는 공동체가 지향해온 미덕의 변형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샌델은 유전공학적 향상을 반대한다.

여타의 생명보수주의자들이 자유나 평등, 인간의 본성 및 존엄성을 근거로 유전공학을 반대하는 것과 달리,⁶⁾ 샌델은 “선물주어짐”이라는 수사법과 공동체의 미덕(virtue)에 호소하는 독특한 전략으로 유전공학을 반대한다. 샌델의 (G1)은 어떤 근거에서 자연을 선물로 인정하는 태도를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하며, (G2)는 어떤 근거에서 유전공학이 미덕의 변형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리고 샌델의 (G1)과 (G2)는 유전공학적 향상을 반대하기에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있는가? 본 논문의 목적은 샌델의 (G1), (G2)를 분석하고, 이것이 유전공학을 반대할만한 타당한 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에 있다.⁷⁾ 필자는 이 글에서 샌델의 “선물주어짐에의 인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도덕성으로 보기에 그 근거가 빈약하며, 유전공학으로 인한 책임의 증폭은 악덕이 아니고, 겸손과 연대성은 변형되지 않는다고 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샌델의 (G1), (G2)는 유전공학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논거가 될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논문의 순서는 우선, 유전공학을 반대하는 샌델의 논거인 (G1)과 (G2)를 고찰한 후(2장), 다음으로 (G1)의 문제와 (G2)의 결함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식으로(3장, 4장)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6) 예를 들어 하버마스(J. Habermas)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위배됨을 근거로 유전적 향상을 비판하며, 후쿠야마(F. Fukuyama)는 유전공학적 향상이 도덕성과 평등의 원천인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킴을 비판한다. 그리고 카스(L. Kass)는 유전적 향상이 인간을 비인간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Habermas, J., 장은주 역,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나남, 2003, Fukuyama, F., *Our Posthuman Future-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New York, Farrar Straus Giroux, 2002, Kass, L., "Ageless Bodies, Happy Soul : Biotechnology and Pursuit of Perfection", *The New Atlantis*, spring(2003).

7) 샌델의 논증을 비판하는 것과 유전공학을 옹호하는 것은 구별된다. 이 논문의 관심은 유전공학의 옹호에 있지 않음을 밝혀둔다.

2. 유전공학적 향상에 대한 반론

2-1. 선물주어짐의 윤리

샌델이 유전공학적 향상을 반대하는 첫 번째 논거는 다음과 같다.

(G1) 유전공학적 향상은 선물주어짐을 인정하는 태도에 어긋나므로 비도덕적이다.

샌델이 보기에 유전공학적 향상이 취하는 태도나 성향, 마음의 습관은 “선물주어짐에의 인정 (appreciation of the giftedness, 이후부터 AG로 표기함)”의 태도에 어긋나며,⁸⁾ 그의 관점에서 이것은 비도덕적인 태도이다. 그래서 그는 유전공학적 향상을 반대한다.

우선, (G1)의 핵심 단어인 AG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샌델은 AG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한다.

삶의 선물주어짐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재능과 능력을 발전시키거나 발휘하는데 들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능과 능력은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해내는 행위의 소산이 아니며, 완전히 우리의 소유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구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님을 인지하는 것이다.⁹⁾

즉, AG는 인간의 재능과 능력은 전적으로 인간이 이리저리한 행위들로 얻을 수 있는, 인간적 행위의 결과물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재능과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재능과 능력이 완전히 노력의 결과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연적인 재능 및 능력은, 샌델이 보기

8) 샌델은 자신이 문제 삼는 것은 유전공학적 향상이 표현하는 “성향”, “태도”, “마음의 습관”이라고 말한다. Sandel, M. J., “Mastery, Hubris, and Gift”, *Journal of Law, Philosophy and Culture*, Vol. 3, NO. 1(2009), 153쪽, CP, 45쪽, 68쪽, 82쪽, 123쪽.

9) Sandel, M. J., *The Case against Perfection - Ethics in the Age of Genetic Engineering* (Harvard Univ. Press, 2009), 27쪽.

에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AG는 자연이 지닌 이러한 선물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원하고 계획한대로 다 되는 것만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샌델은 유전공학적 향상을 인간의 욕구와 목적에 따라 자연을 개조하려는 프로메테우스적 열망이라 부르고, 이러한 태도를 “정복에의 충동”이라고 규정한다.¹⁰⁾ 그리고 그는 정복에의 충동은 AG의 태도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AG와 양립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¹¹⁾ 즉, 유전공학적 향상은 정복에의 충동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AG의 태도와 양립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유전공학적 향상은 인간이 자연적 능력을 전적으로 스스로가 해내는 행위의 산물로 만들고자 하거나, 세상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려는 충동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메테우스 신(神)처럼 인간 삶의 모든 국면을 통제하려는 충동으로서 유전공학적 향상은 AG의 태도와 반대 지점에 놓인다.¹²⁾ 그리고 샌델은 이것이 유전공학의 문제이고, 잘못(wrong)이며, 반대할만한(objectionable) 근거라고 본다.¹³⁾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AG는 우리가 위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선(good)이기 때문이다. 샌델은 문화적인 도덕적 불안감(moral unease)과 도덕적 전통을 분석하면 선한 삶을 구성하는 특정한 가치에 이를 수 있으며, 그 가치가 AG라고 말한다.¹⁴⁾ 즉, AG는 사람들의 정서와 전통을 바탕으로 끌어낸 도덕성(morality)이며, 샌델은 이를 근거로 유전공학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가 선물주어짐의 윤리에 따라 유전공학의 두 사례인 ‘맞춤아기’와 ‘운동선수의 유전자 조작’의 비도덕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앞의 책, 26-7쪽 참조.

11) CP, 45쪽 참조.

12) Irudhayadhasan, A. M., "An Ethical Assessment of Human Enhancements based on Michael J. Sandel's Ethics of Giftedness", *Journal of General Philosophy*, Vol. 2, No. 1(2015), 1쪽 참조.

13) Sandel, M. J., 앞의 책, 27쪽, 69쪽, 83쪽.

14) Sandel, M. J., "Mastery, Hubris, and Gift", 앞의 책, 153-4쪽.

샌텔은 아이의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골라 맞추거나 운동선수가 유전자를 조작하여 경기에 출전하는 유전공학적 향상에 대해 사람들은 도덕적 불안감을 느끼며, 그 불안감의 근원이 바로 유전공학의 도덕적인 문제라고 본다. 유전공학에 대한 도덕적 불안감의 근거로서 자주 제기되는 것은 '자율성'이라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유전공학은 부모가 아이의 유전적 구성을 미리 선택하게 함으로써 아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샌텔이 보기에 이러한 관점으로는 유전공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첫째, 맞춤아기를 하든 안하든 어차피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유전자를 선택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둘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유전적 향상 역시 자율성 침해의 문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¹⁵⁾ 맞춤아기나 유전자 조작에 자율성 침해가 없더라도, 도덕적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¹⁶⁾ 자율성 외에도 안전성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곤 하는데, 샌텔은 이러한 관점들 역시 유전공학에 대한 도덕적 불안감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안전성이나 불평등은 기술의 발전과 제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전성이 확보되고, 불평등이 해결되더라도 유전공학에 대한 도덕적인 불안감은 여전히 남는다.¹⁷⁾

샌텔은 그 도덕적 불안감의 근원이자 유전공학의 근본적인 문제는 AG의 위반에 있다고 본다. 사람들이 유전공학에 느끼는 불안감은 사회적 관행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겨온 선을 어기는 데에서 기인하며, 그 선에는 AG가 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샌텔은 사회적 관행이 구현한 부모다움(parentthood)의 선¹⁸⁾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한 열린 마음(openness to the unbidden)”이라고 한다.¹⁹⁾ 우리는 친구나 배우자

15) CP, 20-3쪽, 104-5쪽 참조.

16) CP, 22-3쪽, 99쪽 참조.

17) CP, 24-39쪽 참조.

18) CP, 123쪽 참조.

19)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은 샌텔이 신학자 메이(William F. May)의 언명을 인용한 것이다. CP, 45쪽.

를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선택하지 않은 자녀의 특질들을 열린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다움의 선에는 자녀의 조건을 디자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물로서 인정하는 AG의 윤리가 내포되어 있다.²⁰⁾ 또한, 샌델에 따르면, 스포츠의 관행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선은 “타고난 재능에 대한 찬사”라고 한다.²¹⁾ 사람들은 운동선수의 탁월성에 찬사를 보내는데, 그 탁월성은 노력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 타고난 재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평범한 농구 선수가 마이클 조던 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조던보다 더 큰 존경을 받거나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²²⁾ 즉, 타고난 재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스포츠의 선이며, 이는 AG를 전제로 한다. 말하자면 AG는 선들에 내재된 근본적인 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맞춤형아기는 “생명의 신비를 정복하려는 충동”과 “아이를 디자인하려는 부모의 오만”을 표출하며, 운동선수의 유전자조작은 “과잉주체성”과 “정복에의 충동”을 나타낸다.²³⁾ 맞춤형아기와 유전자조작은 자연적 능력을 과잉 노력이라는 기술적 행위의 산물로 만들고자 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획한 대로 하려는 정복에의 충동으로서, 아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모다움의 선과 타고난 재능을 존중하는 스포츠의 선을 오염시킨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AG의 선에 어긋난다. 샌델은 이것이 사람들이 유전공학에 대해 가지는 도덕적 불안감의 근원이며, 유전공학의 진짜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샌델은 유전공학적 향상은 근본적인 선인 AG의 태도를 위반하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한다.((G1)) 그는 우리가 선한 태도인 AG를 추구하고, 이를 어기는 정복에의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유전공학적 향상을 반대한다.

20) Sandel, M. J., *The Case against Perfection - Ethics in the Age of Genetic Engineering*, 앞의 책, 45쪽 참조.

21) CP, 123쪽 참조.

22) CP, 47쪽.

23) CP, 68쪽, 45쪽 참조.

2-2. 미덕의 변형

샌델은 유전공학적 향상을 반대하는 두 번째 논거는 다음과 같다.

(G2) 유전공학이 현실화되면, 인간의 주요한 미덕인 겸손, 책임, 연대성이 변형된다.

즉, 유전공학적 향상을 사람들이 실제로 하게 된다면 그 결과, 겸손, 책임, 연대성이라는 미덕이 변형되는 손실이 생기므로, 유전공학적 향상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G1)이 유전공학적 향상이 취하는 태도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G2)는 유전공학의 현실화가 야기할 도덕성의 손실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G2)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 샌델은 유전공학적 향상에 익숙해지면 겸손(humility)이 약화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고를 수 없다는 사실은 예기치 못한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준다.²⁴⁾ 이러한 태도는 재능이 전적으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며, 세상의 모든 일이 뜻대로 다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을 이끌고, 정복에의 충동을 자제하게 해준다. 그런데 샌델이 보기에 유전공학적 향상에 익숙해지면 이러한 겸손은 약화된다. 유전공학으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신화가 현실화 되면 재능을 자신만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물로 여기게 되는 관점이 팽배해지기 때문이다. 즉, 겸손의 미덕이 약화되고 오만이라는 악덕이 팽배해진다는 것이다.

(나) : 샌델은 유전공학적 향상으로 책임(responsibility)이 증폭될 것이라고 말한다.²⁵⁾ 유전적 제비뽑기라는 “운”이 좌우하던 영역이 “선택”의 영역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그는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모는 아이에게 특정 유전자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운동선수는 팀의 승리에 도움이 되는 재능을 획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본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현재는 농구선수가 리바운

24) CP, 112쪽.

25) CP, 113-6쪽.

드를 놓치는 경우 그 선수가 포지션을 지키지 않았음을 비난하겠지만, 미래에는 선수의 키가 너무 작은 것을 나무라게 될 것이며,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는 태어난 아이의 유전적 결함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²⁶⁾ 유전적으로 지닌 재능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정복자가 될수록 막대한 짐과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 : 샌델은 유전공학으로 인해 연대성(solidarity)이 감소한다고 본다. 그는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이 선물주어진 것 즉, 행운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면, 다음과 같은 도덕적 정서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가진 유전적 재능이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성취물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이라면 그 재능으로 시장경제에서 거둬들인 수확물을 전부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착각이요 자만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상대적으로 주어진 재능을 덜 갖고 태어난 사람들과 그 수확물을 공유할 의무가 있다.²⁷⁾

즉, 우리가 유전적 제비뽑기에서의 행운으로 좋은 재능을 지니고, 이러한 재능으로 사회에서 성공하여 부유해진 것을 인정한다면, 행운으로 거두게 된 수확물을 혼자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불운하여 가난한 삶을 사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연대에 필요한 나눔에의 도덕적 정서가 재능의 우연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샌델은 이러한 인식이 부자들이 부자인 것은 가난한 이들보다 그런 부를 누릴 자격이 더 있기 때문이라는 가정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고 본다.²⁸⁾ 그런데 유전공학은 재능의 우연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유전공학적 향상을 하여 성공한 이들은 성공의 원인이 전적으로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사회 밑

26) CP, 114-5쪽.

27) CP, 117-8쪽.

28) CP, 118쪽.

바닥의 사람들을 보상이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대신 우생학적 교정이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²⁹⁾ 즉, 유전공학은 유전적 제비뽑기로 인한 행운을 통제하여, 행운으로 인해 가능했던 사회적 연대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유전공학이 현실화되어 유전적 제비뽑기라는 운의 영역이 제거되면, 인간은 재능을 온전히 자신이 만든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겸손이 약화되고, 사회의 불행한 이들과의 연대성이 감소되며,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커짐에 따라 책임이 증폭된다는 것이다. 겸손과 책임, 그리고 연대성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도덕성인데, 유전공학의 현실화가 이러한 미덕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샌델은 유전공학적 향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3. 선물의 도덕성

샌델이 유전공학적 향상을 반대하는 첫 번째 논거, (G1)의 논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유전공학적 향상은 정복에의 충동을 표현한다.
- (2) 정복에의 충동은 AG의 태도에 어긋난다.
- (3) 따라서 유전공학적 향상의 태도는 AG의 태도에 어긋난다.
- (4) AG는 인간의 중요한 선이다.³⁰⁾
- (5) 따라서 유전공학적 향상은 비도덕적이다.

샌델이 보기에 유전공학적 향상은 (1)과 (2)에 의해서 AG의 태도에 어긋나며((3)), AG는 지켜져야 할 중요한 선이므로((4)), 이를 여기는 유전공학은 비도덕적이다.((5)) 샌델의 전제 (1)과 (2)는 (3)을, (3)과 (4)는 (5)를 도출한다. 이러한 샌델의 (G1)은 타당한가? 필자는 (3)은 설득력이

29) CP, 118쪽 참조.

30) Buchanan, A., *Beyond Humanity*(NY : Oxford Univ. Press, 2011), 78쪽.

부족하며, (3)이 참이라고 할지라도 (3)과 (4)로부터는 (5)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본다. 우선 (3)부터 비판하면 다음과 같다.

3-1. 유전공학적 향상은 선물주어짐을 인정하지 않는가?

(2)에 따라, 정복에의 충동을 AG의 태도를 어기는 것으로 규정할 때, (1)과 (2)에 의해 도출된 (3)에 따르면, 유전적 향상은 자연적인 능력을 전적으로 행위의 결과물이 되게끔 하거나, 세상의 모든 일을 원하고 계획한대로 하려는 태도를 표현한다. 그러나 (3)이 추구하는 것과 달리, 실제 유전공학 기술은 그러한 통제력을 지니지 않는다. 유전자를 조작한다고 해서 그 기술적 행위가 능력 및 재능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재능이나 능력은 유전자 뿐 아니라 적절한 환경과 교육, 우연한 기회, 인간관계, 행운 등에 영향을 받는다. 특정 유전자를 선택하더라도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삶의 시련이 닥치거나,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하면 능력은 발휘되지 않는다. 유전자를 조작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행운, 안정된 사회에서 태어날 우연성, 인간관계에 실패할 불운 등이 마음대로 통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음악적인 재능과 관련된 유전자를 맞춤하더라도 반드시 음악적 재능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음악적 재능을 얻게 되더라도 그 재능은 반드시 유전자 선택과 노력이라는 행위의 결과물은 아니다. 그 재능에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된 행운, 우연히 얻게 된 기회,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은 행운 등 숱한 우연성이 개입된다.

다시 말해서 유전공학은 유전자를 조작하여 자연적 능력이나 재능을 얻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일 뿐, 재능과 능력을 전적으로 결정하거나 삶의 모든 국면을 원하는 대로 통제하도록 해주는 기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섀넬이 (3)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유전공학의 실제 통제력과 (3)이 추구하는 통제력 사이에는 간극이 있으며, 섀넬은 이 간극을 메울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뷰캐넌(A. Buchanan)은 샌텔이 (3)의 근거를 유전자결정론에 두고 있다고 본다. 유전자결정론자가 아니라면 유전공학으로 재능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는 (3)은 아주 이상한 주장이라는 것이다.³¹⁾ 샌텔이 유전공학의 태도를 정복에의 충동으로 칭할 뿐 아니라, 유전공학의 결과 역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인간이라는 신화의 현실화”³²⁾로 규정하는 것으로 볼 때, 그가 유전자결정론을 상정한다는 뷰캐넌의 지적은 온당해 보인다. 그러나 샌텔이 유전자결정론을 근거로 (3)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3)은 참이 될 수 없다. 유전자 하나로 인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유전자결정론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샌텔은 유전공학으로 원하는 능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3)을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능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로부터 AG의 회피가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뷰캐넌은 이것이 샌텔의 논증이라면 그는 유전공학적 향상이 집단 광기와 비슷한 망상을 일으킨다는 예측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³³⁾

그러므로 샌텔이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3)은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 샌텔이 주장하는 (3)과 달리, 유전적 향상을 하더라도 자연적 능력은 전적으로 행위의 결과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상의 모든 일이 원하고 계획한대로 다 되는 것만은 야당을 인정하는 일은 가능하다.

3-2. 선물주어짐을 인정해야 하는가?

다음으로, (G1)의 핵심 전제, (4)는 타당한가? 샌텔의 (4)에 따르면, 자연적 능력이나 재능을 주어진 선물로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중요한 선이다. 그러나 왜 자연이 선물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도덕이어야 하는가? 샌

31) Buchanan, A., 심지원 외 역, 『인간보다 나은 인간 : 인간증강의 약속과 도전』(로도스, 2015), 161쪽.

32) CP, 113쪽.

33) Buchana, A., *Beyond Humanity*, 앞의 책, 82쪽.

델의 (4)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다.

첫째, (4)의 AG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도덕성을 담지하지 못한다. 샌델이 사회적 관행과 도덕적 불안감을 근거로 AG를 선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①그는 AG를 선으로 규정하기 위해 자신이 제시한 관행이 다른 관행들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 샌델이 제시한 관행 외에도 우리에게 “아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나 “자유롭게 자라나도록 돕는 사랑”을 좋은 부모다움으로 여기는 관행이 있으며, 스포츠 선수의 “한계 극복”이나 “불굴의 의지”를 좋은 것으로서 칭송하는 관행도 있다.³⁴⁾ 이러한 관행들은 유전공학적 향상을 선으로 규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관행들이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은 AG에 도움이 되지 않을 관행들이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AG 외에는 들고 있지 않다.³⁵⁾

또한, ②샌델은 도덕적 불안감을 근거로 AG를 선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강조하는 도덕적 불안감이 다른 도덕적 정서보다 우월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자율성의 침해”는 유전공학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이는 도덕적 불안감의 근원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굳이 도덕적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가? 자유주의 우생학자들은 자유의 침해가 없는 유전공학에 도덕적 편안함을 느낄 것이며, 유전공학을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생식의 자유를 침해함에 대한 도덕적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³⁶⁾ 어째서 유전공학에 대한 샌델의

34) 샌델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평범한 선수보다 재능이 뛰어난 선수를 존경한다는 관행에 호소하며 “타고난 재능에 대한 찬사”를 스포츠의 선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스포츠의 관행에는 타고난 조건이 불리한 선수들이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과 겨루어 승리할 때 환호와 찬사를 보내는 관행도 존재하며, 최선을 다해 한계를 극복한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관행도 존재한다.

35) 손철성 역시 샌델이 사회적 관습이나 관행에 배어 있는 사고방식에 호소하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손철성, 「자유주의적 우생학에 대한 두 가지 비판 방식」, 『철학연구』 119집(대한철학회, 2011), 195쪽.

36) 예를 들어 해리스(J. Harris)는 생식의 자유라는 논지에서 맞춤아기를 지지한다. Harris, J., 영국사상 연구소 엮음, 박민아 외 옮김, 「생식의 자유」, 『논쟁 없는 시대

도덕적 불안감은 다른 도덕적 정서보다 우월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가? 샌델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요컨대, ①,②의 결합은 AG를 선으로 규정하기 위해 AG에 도움이 될 만한 관행과 도덕적 정서에만 호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샌델의 방식은 AG가 경쟁하는 다른 선들보다 준수되어야 하는 도덕적 중요성을 내포함을 보이지 못한다. 선이란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므로³⁷⁾ AG와 경쟁할만한 다양한 선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유전공학적 향상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정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샌델이 배제해버린 선한 관행에서 나올 수도 있다. “행복”, “한계의 극복”, “자유롭게 자라나도록 돕는 사랑” 등이 그러한 선이다. 아이의 불행을 최소화하고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부모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유전공학적 향상은 AG를 어긴다 할지라도 이러한 선들을 충족한다. 불행한 삶을 야기할 특질들을 수용하길 강요하는 유전공학 금지는 AG를 충족할지라도 “아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선을 위반한다. 전자는 비도덕적이고 후자는 도덕인 근거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제시하려면, 샌델은 AG만이 절대적인 도덕인 근거를 보이거나, AG가 경쟁하는 선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는 그럴듯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AG의 도덕적 중요성을 선언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4)의 AG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이기 보다는 여러 선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행위들은 하나의 선과 양립불가능할지라도 다른 선과는 양립가능할 수 있다. AG가 경쟁하는 선들 보다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3)이 참이라 하더라도, (3)&(4)로부터는 유전공학적 향상을 반대할만한 비도덕성((5))을 도출할 수 없다. 뷰캐넌이 지적하듯, 어떤 것이 인간의 주요한 선과 양립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양립불가능성이 그것을 반대할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³⁸⁾

의 논쟁』(이음, 2009), 495-510쪽.

37) 양천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17권, 2호(한국법철학회, 2014), 214쪽.

둘째, (4)의 “선물”은 모호한 개념에 의존한다. 샌델은 자연에 선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수용하는 것을 도덕이라 규정하지만, 무엇이 선물이며 자연인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낮은 지능, 약한 신체, 폭력적인 성격, 노화, 치매, 암은 선물인가? 샌델은 암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건강의 회복”을 위한 것이며, “자연적인 기능을 회복,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정복에의 충동이 아니라고 말한다.³⁹⁾ 즉 질병은 선물이 아니며, 치료는 AG의 태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건강”이나 “자연적인 기능 유지”라는 기준은 치료와 향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투여하는 것은 자연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자연적인 면역능력을 변형하는 것이다.⁴⁰⁾ 이것은 치료인가, 향상인가? “자연적인 기능”이나 “건강”은 모호한 개념이다. “건강”이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 세포가 죽어가고 관절이 낡아서 파손되며 눈의 기능이 떨어지는 평균적인 상태에 개입하여 치료를 하는 것은 향상에 속하게 된다. 또한 “건강”이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유전자조작으로 모든 기관의 노화를 제거하여 천년의 삶을 사는 향상도 치료에 속하게 된다. 이것은 주어진 선물을 유지하는 것인가, 정복하려는 것인가? 샌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치료와 향상의 구분은 흐릿하다.⁴¹⁾ 이러한 모호한 구분으로는 무엇이 AG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다. 즉, 샌델의 (4)는 모호한 경계선에 의존하여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한 (4)로는 (5)의 참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4)는 (5)의 비도덕성을 함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4)의 AG는 다양한 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모호한 개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38) Buchanan, A., 앞의 책, 77-9쪽 참조.

39) CP, 69쪽 참조.

40) Bostrom, N., Roache, R., “Ethical Issues in Human Enhancement”, eds., J. Ryberg & T. Petersen & C. Wolf, *New Waves in Applied Ethics*(Pelgrave Macmillan, 2008), 120쪽.

41) CP, 71쪽.

샌델이 그럴듯한 다른 부가적 전제를 제시하지 않는 한, (5)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G1)은 타당하지 않으며, (G1)을 근거로 유전공학을 반대하는 샌델의 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4. 겸손, 책임, 그리고 연대성

샌델의 (G2)는 유전적 향상이 현실화되면, 그 결과로 겸손, 책임, 연대성이라는 미덕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G2)는 타당한 주장인가? (G2)의 (가), (나), (다) 각각을 비판하면 다음과 같다.

(가') : 샌델의 (가)에 따르면, ㉠미덕인 겸손은 재능이 전적으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는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악덕인 오만은 재능을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물로 여기는 것인데, ㉡유전공학적 향상이 현실화되면 재능을 온전히 자신이 이뤄낸 결과물로 여기게 되므로, 겸손이 약화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선, ㉡은 참이 아니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유전공학은 재능을 얻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재능이 온전히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러한 착각은, 맥코넬(T. McConnell)이 지적하듯, 유전공학 기술의 사용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⁴²⁾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우연한 환경과 행운에 대한 감사는 가능하며,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재능을 얻었다는 착각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전공학이 현실화된다고 해서 겸손의 약화나 오만의 팽배, 혹은 착각은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는 타당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가)를 통해서는 유전공학을 반대할 수

42) McConnell, T., "Genetic Enhancement and Moral Attitudes Toward the Given",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Vol. 28, No. 4(2011), 372쪽.

없다. ㉠의 겸손과 오만의 기준이 AG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AG는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선들 가운데 하나일 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절대적인 도덕성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AG의 동어반복에 불과한 미덕이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유전공학을 반대할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 (나)는 유전공학이 기존의 미덕인 책임의 증폭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럴듯한가? 캄(F. Kamm)과 레브(O. Lev)는 우리에게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없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타인을 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⁴³⁾ 즉, 우리에게는 반드시 유전공학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유전공학적 향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을 감수할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샌텔은 미래의 농구선수는 자신의 작은 키에 대한 비난을 받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캄과 레브는 농구선수에게는 유전자 조작을 해야 할 의무가 없기에 비난의 책임도 없다고 본다. 오히려 농구선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에 의한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을 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전공학적 향상을 해야 하는 책임은 없을지라도, 유전공학적 향상을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증가된 선택으로 인해 보다 많은 책임이 부가될 것이다. 결과를 예상하고 한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예전보다 책임이 증가될 것이라는 (나)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책임의 증폭이 약덕이라는 (나)의 주장에는 그럴듯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선택에의 능력은 책임을 함축한다. 이러한 책임의 증폭은 왜 나쁜 것인가? 해리스(J. Harris)는 선택에 따른 책임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약덕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⁴⁴⁾ 사실상 문명의 역사에

43) Kamm, F., "What Is and Is not Wrong with Enhancement?", eds., J. Savulescu & N. Boström, *Human Enhancement*(NY : Oxford Univ. Press, 2009), 121쪽, Lev O., "Will Biomedical Enhancements undermine Solidarity, Responsibility, Equality and Autonomy?", *Bioethics*, Vo. 25, No. 4(2011), 180쪽.

44) Harris, J., *Enhancing Evolution : The Ethical Case for Making Better People*,

있어서 인간의 책임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증대되어왔다.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질병과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이 증대되어 왔고,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늘어난 정보들은 인간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선택지를 확장시켜 선택에 따른 책임을 증폭시켜왔다. 새로운 지식은 새로운 선택을 야기하고, 그것은 책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⁴⁵⁾ 책임의 증가가 악덕의 징후라면, 기술 발전의 역사에서 책임성은 오래전부터 이미 악덕이었어야 할 것이다. 유독 유전공학 기술에 의해 증대된 책임성만이 악덕이라면, 선택은 왜 이 지점부터의 책임이 악덕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 : (다)는 유전공학으로 AG가 침식되면 공동체의 중요한 미덕인 연대성이 감소된다고 주장한다. 선택은 ㉠재능이 유전적 제비뽑기라는 행운의 결과라면,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수확물을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려는 연대가 가능하지만, ㉡유전공학적 향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연대성이 감소된다고 본다. 즉 선택은 AG를 연대성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나허(J. Danaher)가 주장하듯 AG와 연대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⁴⁶⁾ 우선 ㉠과 달리, 재능이 행운의 결과라고 해서 반드시 연대감이 야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선택은 자신의 재능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선물이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그 수확물을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공한 자의 수확물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선물로 인한 수확물을 나누어야 한다면, 선물을 준 신이나 부모에게 나누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며, 혹은 누구에게도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비뽑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뽑기로 인한 선물 크기의 불평등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능이 원래 운에 따라 불평등할 수 있음을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수확물의 불평등은 극복되어야

Princeton(NJ : Princeton Univ. Press, 2007), 118쪽.

45) 앞의 책, 118쪽.

46) Danaher, J., "Human Enhancement, Social Solidarity, and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Vol. 19(2016), 364쪽.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겠는가? AG로부터 가난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연대감이 조성된다는 샌텔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㉔역시 설득력이 미흡하다. 유전공학을 한다고 해서 연대감이 필연적으로 감소된다는 근거는 없다. 대나허가 지적하듯 연대성은 공감, 동정심, 신뢰 등과 같은 경로에 의해 유지되거나 더 쉽게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⁷⁾ 불행한 구성원들을 도와야한다는 연대의 의무감은 그들의 처지에 대한 공감과 동정심, 공동체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연대성의 조건들은 AG를 인정하든 안하든 작동한다. 유전공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전적으로 자신의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될지라도 - 이러한 착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필연성은 없으나- 인간이라면 지니는 공감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공이 스스로의 노력에 따른 결과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사회 밑바닥의 구성원들의 불행과 고통에 공감하고 동정하며 공동체를 신뢰하고 연대하는 일이 가능하다. 게다가 유전공학을 통해 연대성에 필수적인 공감능력이나 동정심을 향상하면 연대성은 더욱 증대될 수도 있다.⁴⁸⁾ 따라서 유전공학적 현실화가 연대성의 감소를 필연적으로 야기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어쩌면, 샌텔은 필연성이 아닌 단지 연대성 감소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전공학으로 행복이 상승하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며, 자유가 보호되고, 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⁴⁹⁾ 연대성의 미덕이 감소되는 대신 다른 미덕들을 얻게 된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손실인가? 가능성을 근거로 유전공학을 반대하려면, 샌텔은 다양한 가능성들을 비교분

47) 앞의 책, 364-5쪽.

48) 맥머한(J. McMahan)은 유전공학적 향상으로 인간이 뛰어난 공감능력을 가지게 되어 예전보다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워커(M. Walker)는 이러한 유전공학의 도덕적 능력의 향상을 지지한다. McMahan, J., "Cognitive Disability and Cognitive Enhancement", *Metaphilosophy*, vol. 40 (2009), 604쪽, Walker, M., "Enhancing Genetic Virtue", *Politics and Life Sciences*, Vol. 28, No. 2.

49) 해리스는 "행복"을, 레브는 "평등"을 주장한다. Harris, J., 앞의 책, 119-120쪽, Lev O., 앞의 책, 179쪽.

석하여 자신이 제시한 가능성이 더 크다거나, 더 중요한 것임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샌델은 어떠한 비교분석도 제시하지 않는다.⁵⁰⁾ 따라서 (다)의 논지를 가능성으로 해석해도 (다)는 유전공학을 반대하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호스켈러(M. Hauskeller)는 유전공학적 향상이 미덕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무조건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⁵¹⁾ 그러나 하나의 미덕을 약화한다고 무조건 거부되어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유전공학적 향상을 금지하는 것 역시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유전공학적 향상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이나 자유의 미덕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샌델이 주장하는 연대성은 중요한 도덕성을 내포하기에 미흡한 단점이 있다. 유전적 제비뽑기의 행운을 인정해야 연대감이 조성된다는 샌델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가진 자의 입장에서의 연대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자들의 연대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운한 이들에게 가난의 고통과 부의 불평등을 안겨야 할 이유가 있는가? 불운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면, 운이 좋은 자들이 수확물을 나누어 줄때까지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여 유전자의 행운을 나누어 주는 것도 연대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있을 수 있는 가난의 고통을 줄이고, 불평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해리스는 유전공학을 금지하는 것 보다, 유전공학으로 공유할 수확물을 많이 가진 개인들을 증가시킴으로써 재분배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⁵²⁾

다시 정리하면, 샌델이 염려하는 책임의 증폭은 반드시 악덕이어야 할 근거가 빈약하며, 유전공학의 현실화로부터 겸손의 약화와 연대성의 감소가 필연적으로 야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 (나), (다)로 구성되는

50) 신상규 역시 이러한 논지의 비판을 제시한 바 있다. 신상규, 『프로메테우스를 옹호함 : 인간향상 시대의 인간학과 윤리적 쟁점』, 『과학철학』 18권, 3호(한국과학철학회, 2015), 215쪽 참조.

51) Hauskeller, M., "Human Enhancement and the Giftedness of Life", *Philosophical Papers*, Vol. 40, No. 1(2011), 60쪽.

52) Harris, J., 앞의 글, 120쪽.

(G2)는 유전공학을 반대하는 타당한 논거가 될 수 없다.

5. 맺음말

필자는 이 논문에서 유전공학적 향상을 반대하는 샌텔의 논거, (G1)과 (G2)가 어떤 것인지 고찰하고, 이 논거들의 결합을 비판함으로써 (G1)과 (G2)는 유전공학적 향상을 반대할 타당한 논거가 될 수 없음을 논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샌텔은 유전공학적 향상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유전공학적 향상은 AG의 태도에 어긋나므로 비도덕적이며((G1)), 유전공학이 현실화되면 인간의 주요한 미덕인 겸손, 책임, 연대성이 변형되기 때문이다((G2)).

2. (G1)에 따르면, 자연을 개조하는 유전공학적 향상은 재능을 전적으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라고 여기거나 세상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려는 정복에의 충동으로서, AG의 태도에 어긋난다. 그리고 AG는 인간의 중요한 선이므로 이를 어긴 유전공학적 향상은 비도덕적인 것이다.

3. 그러나 유전공학적 향상이 AG의 태도에 어긋난다는 (G1)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약하다. 유전공학 기술은 재능을 행위의 결과로 만들거나 세상의 모든 것을 뜻대로 되게끔 해주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샌텔은 재능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일 뿐인 유전공학이 어째서 모든 것을 뜻대로 하려는 충동에 해당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4. 그리고 AG가 중요한 선이므로 이를 어기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이라는 (G1)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샌텔은 사회적 관행과 도덕적 불안감을 바탕으로 하는 AG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도덕적 중요성을 지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며, 둘째, AG가 전제로 하는 “선물”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샌텔은 유전공학이 AG를 어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도덕적이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유전공학을 반대할 수 없다.

5. (G2)에 따르면, 유전공학이 현실화되면 재능이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

라고 여기게 되어 겸손이 약화되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증폭되며, 공동체의 불운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연대가 감소한다.

6. 그러나 (G2)는 타당하지 않다. 첫째, 유전공학이 현실화되더라도 겸손이 반드시 약화되는 것이 아니며, 둘째, 책임이 증폭되는 것이 악덕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셋째, 유전공학이 현실화된다고 해서 연대성이 필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전공학이 현실화된다고 해서 샌델이 우려하는 미덕의 변형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7. 따라서 (G1)과 (G2)는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논거로 하여 유전공학적 향상을 반대하는 샌델의 주장은 옳지 않다.

참고문헌

- 신상규. 「프로메테우스를 옹호함 : 인간향상 시대의 인간학과 윤리적 쟁점」. 『과학철학』. 18권 3호. 한국과학철학회. 2015.
- 손철성. 「자유주의적 우생학에 대한 두 가지 비판 방식」. 『철학연구』. 119집. 대한철학회. 2011.
- 양천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17권 2호. 한국법철학회. 2014.
- 홍성욱 외 지음. 『호모사피엔스씨의 위험한 고민』. 메디치. 2015.
- Buchanan, A., 심지원 외 역. 『인간보다 나은 인간 : 인간증강의 약속과 도전』. 로도스. 2015.
- Buchanan, A., *Beyond Humanity*, NY : Oxford Univ. Press. 2011.
- Bostrom, N., Roache, R., "Ethical Issues in Human Enhancement", eds., J. Ryberg & T. Petersen & C. Wolf, *New Waves in Applied Ethics*, Pelgrave Macmillan. 2008.
- Danaher, J., "Human Enhancement, Social Solidarity, and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2016. Vol. 19.
- Fukuyama, F., *Our Posthuman Future-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New York, Farrar Straus Giroux. 2002.
- Habermas, J., 장은주 역.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나남. 2003.
- Harris, J., 영국사상 연구소 엮음. 박민아 외 옮김. 「생식의 자유」. 『논쟁 없는 시대의 논쟁』. 이음. 2009.
- Harris, J., *Enhancing Evolution : The Ethical Case for Making Better Peopl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 Press, 2007.

- Hauskeller, M., "Human Enhancement and the Giftedness of Life", *Philosophical Papers*, Vol. 40, No. 1. 2011.
- Irudhayadhasan, A. M., "An Ethical Assessment of Human Enhancements based on Michael J. Sandel's Ethics of Giftedness", *Journal of General Philosophy*, Vol. 2. No. 1. 2015.
- Kamm, F., "What Is and Is not Wrong with Enhancement?", eds., J. Savulescu & N. Bostrom, *Human Enhancement*, NY : Oxford Univ. Press. 2009.
- Kass, L, "Ageless Bodies, Happy Soul : Biotechnology and Pursuit of Perfection", *The New Atlantis*, spring, 2003.
- Lev O., "Will Biomedical Enhancements undermine Solidarity, Responsibility, Equality and Autonomy?", *Bioethics*, Vo. 25, No. 4. 2011.
- McConnell, T., "Genetic Enhancement and Moral Attitudes Toward the Given",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Vol. 28, No. 4. 2011.
- McMahan, J., "Cognitive Disability and Cognitive Enhancement", *Metaphilosophy*, vol. 40. 2009.
- Sandel, M. J., 이수경 역. 『완벽에 대한 반론』. 와이즈베리. 2016.
- Sandel, M. J., "Mastery, Hubris, and Gift", *Journal of Law, Philosophy and Culture*, Vol. 3. NO. 1. 2009.
- Sandel, M. J., *The Case against Perfection- Ethics in the Age of Genetic Engineering*, Harvard Univ. Press. 2009.
- Walker, M., "Enhancing Genetic Virtue", *Politics and Life Sciences*, Vol. 28. No. 2.

Abstract**Is Right M. Sandel's criticism of
Genetic Enhancemet?**

Lee Chae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Michael J. Sandel's argument against genetic engineering enhancement. Sandel argues that (G1) genetic enhancement is immoral because it is against the attitude of AG, and that (G2) when genetic engineering is realized, virtue of humility,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is transformed. However, unlike (G1), genetic engineering enhancement is not against the attitude of AG, and even if it is against AG's attitude, it is not immoral. First, the argument that genetic engineering, which is only a technology to provide the possibility to gain talent, is contrary to AG's attitude is poorly grounded, and second, there is a lack of evidence that AG has the morality to be observed. And (G2) is not convincing either. First, even if genetic engineering is realized, humility does not necessarily weaken, second, there is no reason that the amplification of responsibility is to be vicious, and third, although genetic engineering is realized, solidarity is not necessarily reduced. Therefore, the author thinks that (G1) and (G2) are not valid, and that based on this, Sandel's argument against genetic engineering enhancement is not correct.

【Key words】 Michael J. Sandel, Genetic Enhancement, Giftedness, Hubris, Responsibility, Solidarity

논문접수일: 2017년 11월 15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20일